

# 《신기관》

근대 인식론의 첫장 연 과학정신

프랜시스 베이컨 지음 | 진석용 옮김  
한길사/A5신/324면/22,000원

김용환 | 한남대 철학과 교수

마침내 프랜시스 베이컨의 《노붐 오르가눔》이 우리말 번역으로 나왔다. 이 작품은 번역하기가 결코 만만치 않은 작품이다. 그럼에도 번역문이 아주 자연스러워 글을 읽는데 마치 물이 흐르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 옮긴이의 수고가 흠뻑 담긴 역작임에 틀림없다.

## 베이컨 철학의 요체 담겨

《신기관》은 근세 영국 경험론 철학과 실험 정신에 근거한 자연철학의 문을 연 베이컨 철학을 가장 잘 드러내 주고 있는 작품이다. 이 책은 우리를 시간 열차에 태우고 17세기 초의 유럽으로 날아가게 해주고 있다. 그때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거물이 만든 ‘오르가눔’이라는 낡은 기관으로 수백년을 철학의 세계뿐만 아니라 가톨릭 교회까지 완전 점령하고 있던 시대였다. 그러나 동시에 갈릴레오, 코페르니쿠스 등 근대 과학의 문을 연 과학자들의 활동을 지켜보면서 베이컨은 아무런 생산성이 없는 불모의 이 낡은 기관을 기꺼이 포기하고 파괴하고자 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의 ‘노붐 오르가눔’은 새로운 엔진(신기관)을 의미한다.

‘파괴는 건설의 어머니’라고 했던가? 세상의 모든 일들이 그렇듯이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려면 낡은 것은 파괴되거나 무너져야 한다. 그리고 새로 구성해야 한다. 서양 근대 인식론의 첫 장은 바로 파괴와 구성의 방법으로 진행됐고 베이컨을 필두로 데카르트, 흄스, 스피노자, 뉴턴 그리고 라이프니츠와 흄이 모두 그런 길을 택했다.

이 책은 2권으로 구성돼 있다. 1권의 핵심은 이상론으로 낡은 이론을 파괴하려는 베이

컨의 프로그램이 잘 드러나 있으며, 2권은 귀납법에 관한 구체적 사례 연구들을 모아 놓은 것이다. 베이컨의 말대로 “낡은 것에 새 것을 더하거나 잇대어 낡은 것으로는 학문이 크게 진보할 수 없으며, 혁신은 근본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베이컨은 우리 정신을 고질적으로 사로잡고 있어서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마음의 경향들과 그릇된 관념들을 ‘우상’이라 일컫고 여기에 네가지 우상들을 이름 붙이고 있다. 인류의 보편적 오류를 ‘종족의 우상’으로, 개인들의 주관성으로부터 오는 편견과 선입견을 ‘동굴의 우상’으로, 인간 상호간의 교류에서 우리를 곤잘 속이는 언어적 오류를 ‘시장의 우상’으로, 그리고 전통과 권위의 이름으로 새로운 것을 가로막는 마음의 경향을 ‘극장의 우상’으로 불렀다. 이런 우상들을 우리 마음으로부터 파괴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학문과 지식을 얻을 수 없다. 시공간을 뛰어넘어 우리 마음 속에 이런 우상들이 여전히 자리잡고 있다는 점에서 베이컨의 우상 파괴론은 여전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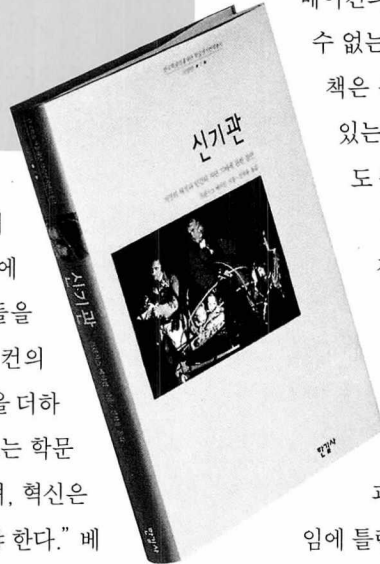
## 치밀한 과학적 실험정신 엿보여

2권에서 우리는 베이컨의 실험정신과 관찰력이 얼마나 치밀했는가를 충분히 발견할 수 있다. 열에 관한 존재표로부터 시작해서 27개의 특권적 사례들에 대한 관찰 기록은 이 책의 부제목이 말해주듯 자연에 대한 해석과 인간의 자연 지배를 위한 지침서가 되기에 충분하

다. 자연 현상들과 물질의 성질에 관해 베이컨은 당시의 과학적 지식을 유감 없이 발휘하고 있다. 도무지 법관으로 일생을 보낸 사람으로서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높은 수준이다.

오늘날 과학과 기술의 이름으로 파괴된 자연을 되돌아볼 때 그 파괴 원인의 한 가닥이 베이컨의 자연관에 있다는 점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우리의 자연관을 되돌아볼 수 있는 ‘반면교사’의 역할을 하기도 충분할 것이다.

근대 정신을 배우는 데 좋은 길잡이가 될 이 책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동서양 학술명저 번역 지원 사업의 도움으로 번역됐다는 사실은 한국의 서양철학사 연구와 과학사 연구에 큰 기여를 할 것임에 틀림없다. ■



김용환 교수는 연세대 철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영국 웨일즈 대학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남대 철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저서 《관용과 열린사회》 《흄스의 사회, 정치철학》 《서양 근대철학》 등이 있다.

다음은 인간 지성의 오류를 지적하기 위해 베이컨이 키케로의 글에서 인용한 대목으로 ‘과학적 정신’을 강조하는 베이컨의 사상을 엿볼 수 있다.

“인간의 지성은 한번 ‘이것이다’ 하고 생각하고 나면, 다른 모든 것을 그것을 뒷받침하거나 그에 합치되도록 만든다. 아무리 유력한 반증 사례들이 있다 해도 무시하거나 경멸하거나 그것만 예외로 치부해 제외하거나 배척하고 만다. 이것은 순전히 처음에 내세운 주장의 권위가 손상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배가 난파의 위험에 처했을 때 하느님께 기도를 드려 살아난 인간들의 모습을 그려놓은 봉헌도(奉獻圖)를 신전에 걸어놓고, 이래도 하느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느냐고 물었을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반문했다고 한다. “그렇지만 살려달라고 기원을 했는데도 끝내 물에 빠져 죽고 만 사람의 그림은 어디에 있느냐?”

15세기의 한 이탈리아 연대기는 볼로냐 근처에 살고 있던 어느 촌민의 잔인한 운명담(?)을 기록했다. 그는 야음을 틈타 영주의 잘 익은 복숭아를 훔치다가, 그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영주는 그에게 마구 호통을 치며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교훈을 남겼다. “이 다음에는 내 동료(귀족)들이 먹는 과실은 절대로 손대지 말고, 오직 네 것만 먹도록 해라. 무, 사과, 마늘, 양파, 수수빵과 염교(작고 길쭉한 양파의 일종) 따위나 먹어라.”

### 식탁은 역사와 문화의 텍스트

그 당시에 복숭아는 매우 진귀한 과일이었고, ‘부유한 귀족이나 가난한 농민이나’에 따라서 위장도 그 격이 그야말로 천양지차였다. 즉 모두가 공유하는 전제는 “각자의 자질에 따라” 먹어야 한다는 것이다. 쥐코 파텔라라는 이 가없는 농부는 결국 끓는 물에 몸을 담그는 무서운 형벌을 받았다. 영주는 그가 비단 절도죄뿐만 아니라, 사회질서를 교란하고 위계질서를 약화시키며, 귀족의 특권을 공격했다고 통렬히 비난해 마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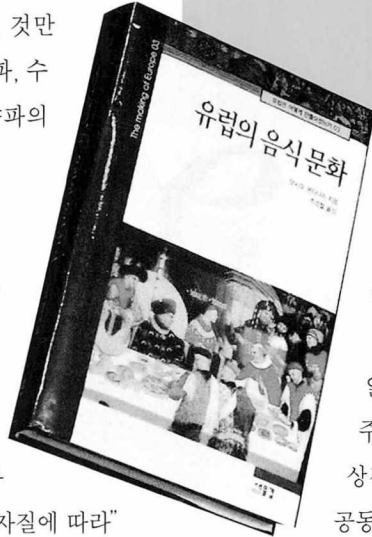
두 세기가 지난 후에 다른 연대기는 선량한 베르톨도의 병상일지를 후세에 전해준다. 다 죽어 가던 베르톨도는 자기의 농민신분에 맞는 거친 음식 대신에, 부드럽고 진귀한 보양식을 먹고 증병을 치유할 수가 있었다. “네가 무엇을 먹는지 말해주면, 과연 내가 어디 출신인지 내가 말해주마.”

맛시모 몬타나리는 현대인이 좀처럼 상상하기 어려운 이 신기한 과거의 식문화를 통해, 과거와 오늘의 유럽을 이야기한다. 즉 ‘식도락가 아피키우스의 산해진미에서 오늘날 패스트푸드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고 맛있는 독서기행을 한다. 우리는 그의 저서를 통해 로마인들이 모두 부유한 해방노예 트리말키오처럼 성대한 향연의 환락에 빠져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배우게 된다. 로마인들은 곡물과 야채의 검소한 식생활을 하다가, 북방의 야만인과 접촉하면서 비로소 육식

## 《유럽의 음식문화》

잘 차려진 식탁에서 맛보는 인류의 상징과 역사

맛시모 몬타나리 지음 | 주경철 옮김  
새물결/A5/304면/13,000원



김복래 | 한라대 강의전담 교수

으로 전환했다.

몬타나리의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잘 차려진 식탁에서 역사와 문화를 읽을 수가 있다. 식탁은 우주 그 자체에 대한 물질적 상징이며, 개인 간의 관계,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소외감, 권력관계의 다양한 형태, 또 좋고 나쁜 취미의 코드와 가치의 위계질서를 구체화하는 장(場)이다. ‘사회적 동물’로서 인간은 유사 이래 가능한 한 음식과 식탁을 상징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늘 강조해왔다. 인간은 그것을 제구실을 다하는 언어도구 내지, 매우 강력하고 효과적인 전달코드로 만들어 왔다.

### 인류와 음식의 상호관계 밝히

따라서 음식을 말하는 것은, 경제·문화·과학·정치·예술·종교, 즉 간단히 말해서 인간 경험에 관한 ‘모두’를 언급하는 것이다. 그래서 고대에는 음식의 언어가 다른 민족과 다른 문화(야만/문명)를 구분하는 문명의 표상이 됐고, 또 중세에는 강한 계급의식에 바탕을 둔 식관습이나 사회적 성격의 음식전달개념, 식탁예절이나 엔터테인먼트의 형태로 승화됐다. 또한 산업혁명을 통해 전대미문의 인류와 음식의 새로운 관계가 정립된다.

그러나 이런 역사의 중심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탐구하는 것은 음식 그 자체나 소비가 아니라, 인류와 음식의 상호관계,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서 인지되고 조직되는 식관습이다.

그러므로 이 책의 기본 내용은 음식과 그 생산체제 및 소비모델에 관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그 이상의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빵은 유럽문명의 종합적인 상징이다. 그림에도 “인간은 빵만으로 살 수 없다”는 진부한 경구가 문득 떠오르는 것은, 아마도 오늘날 우리가 기아에서 비만의 공포로 전환한 뉴 밀레니엄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

김복래 교수는 파리1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한라대 강의전담 교수다. 저서 《서양생활문화사》, 《역사(조각난 역사)》 등이 있다.

다음은 현대의 다이어트 현상에 대한 몬타나리의 날카로운 통찰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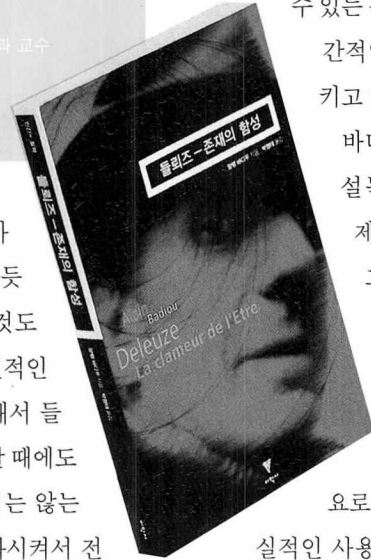
“오늘날 ‘다이어트’(diet)는 일상의 화제, 주요 식탁에서의 화제가 되었다. 어쨌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음식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뒤바뀌었다는 것이다. 음식의 과잉 섭취에 대한 위험과 공포가 기근에 대한 위험과 공포를 대체했다. … 대중 사회에서 ‘다이어트’의 성공은 또한 참회와 포기를 지향하는 가치를 여전히 속에 간직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것은 음식이 풍성하다 못해 과도한 이 시대에 광고와 매스 미디어가 소비(반드시 음식의 소비만이 아니라 모든 소비)를 부추기는 순전히 쾌락주의적인 이미지를 거부하고 더 나아가서 자기처벌을 하려는 욕망인 것이다. 쾌락은 여전히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쾌락은 죄와 연관지어 가르치는 종교적 전통의 무게는 너무나 무겁게 내리누른다.”

# 《들뢰즈—존재의 함성》

고전철학의 맥락에서 독해한 들뢰즈 철학

알랭 바디우 지음 | 박정태 옮김  
이학사/A5변형/398면/15,000원

박성수 | 한국해양대 유럽학과 교수



알랭 바디우가 들뢰즈와 대립하는 사유를 전 개시키는 철학자라는 사실은 이 책의 독자에게 별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없다. 실제로 본문에서 바디우는 들뢰즈와 구별되는 자신의 견해를 각 논의의 말미에 아주 짧게 소개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들뢰즈—존재의 함성》의 힘은 오히려 들뢰즈의 사상을 소비하는 방식을 지배했던 두 가지 경향에 대립한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하나는 들뢰즈의 이론을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정전인 양 흡수하면서 단기적인 효과만 있는 개념들을 무분별하게 차용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말하자면 들뢰즈가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했다는 식으로 소문을 내면서 사실상 들뢰즈를 묻어버리는 것에 불과하다. 다른 하나는 들뢰즈의 철학이 비합리주의의 전형이고 논리적인 체계성이나 엄밀한 추론적 절차가 결여된 수사학의 범람이라고 경멸하는 방식이다. 들뢰즈의 사상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것이 비교적 왕성하게 논의되고 있다는 사태에 더 많은 관심을 두면서 출발한 이런 독서 방식은 결국 들뢰즈로부터 빨리 손을 떼려는, 그리고 손을 떼라는 의도 이외의 것이 아니다.

## 들뢰즈 사상과 그 연원에 대한 성실한 독해

바디우는 들뢰즈를 전형적인 고전 철학의 맥락 안에서 포착한다. 존재, 인식 그리고 양자의 관계에 대한 고전적인 문제를 “단조로울” 정도로 치열하게 사고했다는 것이다. 들뢰즈를 찬찬히 읽어본 독자라면 부딪힐 수밖에 없었을 그 사상의 모호한 부분과 수궁하기 곤란한 부분들을 뛰어난 명확함으로 정리해주면

서 그런 부분들을 축으로 삼아 들뢰즈의 사유 과정을 도해하듯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것도 플라톤, 칸트, 헤겔 등의 고전적인 철학의 문제의식 아래서. 그래서 들뢰즈를 플라톤주의자라고 말할 때에도 그것이 그렇게 뼈뺏해 보이지는 않는다. 들뢰즈가 협소하게 모델화시켜서 전복시키려고 했던 플라톤주의가 아니라, 고전 철학의 원류로서 플라톤주의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플라톤이나 헤겔 등과 들뢰즈 사상의 연관성 또는 구조적 유사성을 지적한다는 것이 들뢰즈의 사유가 헛된 노력이었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두 가지로 이해돼야 한다. 첫째, 플라톤이나 헤겔이 그렇게 간단하게 처리되고 매장돼야 할 사상가들이 아니라는 당연한 논이며, 둘째는 들뢰즈 사상의 독특함과 생동감을 철학사적인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이 주어진다 점이다. 이것만으로도 이 책의 힘과 가치는 상당한 것이다.

## 무기력을 부르는 욕망과 해체의 전략

젊은 시절 극좌적 입장에서 들뢰즈에 대항했던, 그리고 철학의 정치적 성격을 말하는 바디우는 정작 그의 논의에서는 《반오이디푸스》나 《천개의 고원》 같은 저작을 참조하지 않는다. 그는 들뢰즈가 이후의 사상적 전개를 선취적으로 집대성해놓은 《차이와 반복》이라는 초기 저작과 감각적인 대중문화의 장르에 대한 말년의 철학적 논의인 《영화》를 주요한 텍스트로 간주한다. 정치적 효능이 있었던 들뢰

즈의 저작들이, 그가 가졌던 근본적인 철학적 문제의식에 대한 해결시도들이 “무미건조할” 정도의 반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 그는 철학의 정치적 힘이 그때 그때의 사상적 공백을 메우는 일시적 용도에 있다고 보지 않는 듯하다. 그보다는 욕망과 해체의 전략이 내놓 수 있는 무기력을 강조하면서 무시

간적인 진리의 개념을 복원시키고 있다. 물론 이 책의 목적이 바디우의 대안이 어느 정도 설득력 있고 수용가능한지 제시하는 데 있지는 않다. 그것은 그의 다른 책이 다를 과제다. 바디우의 대안이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가 들뢰즈를 필요로 했던, 또 아직도 필요로 하고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용에까지 이르기에는 그의 논의가 조금은 멀리 위치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물론 그 거리를 좁히는 일을 바디우에게 기대할 필요는 없다. “고전적인” 철학으로서 들뢰즈의 사상과 우리의 현실적 용도 사이를 좁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몫이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다. “탈주”의 약발(?)이 잦아드는 시기에 또 하나의 사상이 선불리 용도 폐기되기 전에 읽어봐야 할 책이 아닐까. ■

박성수 교수는 현재 한국해양대 유럽학과에서 강의하고 있다. 《문화과학》 편집위원이며, 저서 《영화, 이미지, 이론》 《들뢰즈와 영화》 《영화 이미지의 미학》(공저) 등이 있다.

1999년 10월 21일부터 10월 23일까지 3일 동안, 보르도 3대학에서는 프랑스, 벨기에, 미국, 영국의 철학자들이 모여 알랭 바디우의 사유를 주제로 발표 및 토론회를 연 바 있다. 생존해 활동중인 철학자의 사유를 대상으로 이 정도 규모의 토론회를 개최한 것도 극히 이례적인 일이지만, 특히 참석자들(장-뤽 낭시, 자크 랑시에르, 프랑수아 발, 에티엔 발리바르 등)의 면면을 볼 때, 이 같은 토론회의 개최는 이미 바디우의 사유가 현대 프랑스 철학의 부동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음을 증거한다.

인문과학은 그 대상은 물론 방법도 자연과학과 다르며, 아니 자연과학적 방법을 비판하고 이를 넘어서거나 포용하는 학문인 것처럼 여겨져왔다. 그러나 철학이 그 발생지인 그리스에서 자연철학으로 시작했고 그 방법은 모순에 따른 존재론적 사고였음은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다. 그리고 모순에 따르는 존재론적 사고가 분석적이었으며, 그리스 자연철학의 최후결과가 원자론이었음을 모르는 철학자는 아마 없을 것이다.

### 자연과학적 본성 탐구한 근대철학

단언하면 서구철학은 근대 이후에 비약적으로 발전한 자연과학을 탄생시킨 어머니다. 이 때문에 근대 이후 서구에서는 합리성의 모델이 된 자연과학을 전제하지 않은 철학은 그 정통성에서 벗어난다. 사실 현대에서 보면 자연과학적 지식은 자연에 대한 인류의 지혜가 결집해 이뤄낸 학문적 성과며, 근대 이후 서구 형이상학이나 철학은 이 자연과학적 지식을 생의 현실에 기초해 비판적으로 반성하고 이 학문의 본성과 그 한계들을 드러내놓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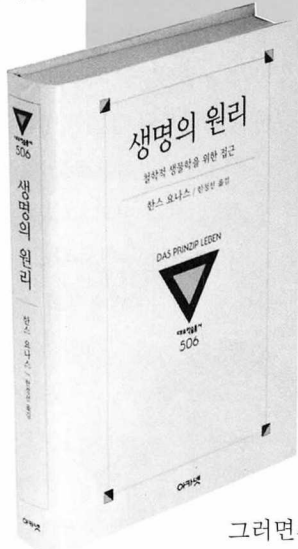
과학이 가져오는 실증적 사실과 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현상학적 방법을 개발한 철학이 가져오는 정신의 자기 성찰 내용이 변증법적 종합을 이룰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 사실 현대과학도 이제는 근대적 의미의 주체성과 목적성을 배제한 정량적이고 기계적인 과학적 태도와 방법만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다. 양자역학 이후 과학 자신도 스스로의 방법을 반성하고 그 대상을 확대해왔다. 그리고 철학도 합리성에 기초해 존재론적으로는 초월적이고 윤리적으로는 비현실적인 이상과 가치를 말하면서 역사와 생의 현실을 외면하고 초월하는 듯한 위장된 공리공담과 윤리적 허장성세만을 늘어놓을 수는 없다.

그러면 현대철학에서 여러 분과 과학과 전통적인 형이상학적 사유가 만나는, 그래서 모든 학문의 기초가 되고 화두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생명의 존재 사실과 인간은 생명체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 《생명의 원리》

생명현상의 내면성과 역동성 고찰해

한스 요나스 지음 | 한정선 옮김  
아카넷/A5신/606면/25,000원



이 생명에 대한 탐구와 방법은 이제 특정한 종교나 주의, 학문이나 가치에 의해 미리 알려지고 결정된 것으로 전제해서는 안된다.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인류가 이뤄놓은 모든 정신적 성찰과 경험과학적 지식은 물론 모든 학적 방법을 동원해 생명의 신비를 해명하는 일과 우리가 생물체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현실을 이런 생명체의 설명을 바탕으로 윤리적으로 정립하고 정당화해야 한다. 이 때문에 철학이 만학의 왕이라면 철학은 이제 생명철학이 돼야 한다.

그런데 이런 생명철학의 화두가 되는 생명·유기체의 존재는 삶과 죽음, 즉 존재와 비존재로의 가능성에 열려 있는 불합리하고 모순된 과정적이며 동적, 시간적 존재다. 생명체의 존재 사실과 죽음의 불합리함과 신비는 과학적으로 그리고 철학적으로, 즉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현실이다. 특히 서구 존재론은 분석적이고 존재보다는 비존재를 좀더 기초적인 것으로, 운동을 존재의 소멸로 생각하는 습관과 문화를 형성해왔다.

### 철학적 문제들 속에서 사유된 생명현상

인간 지성의 이런 허무주의적 경향의 비극적 전통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스 요나스는 《생명의 원리》에서 생명철학이 한편으로는 과학적 탐구의 성과를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과학이 배제한 목적성과 생명

송영진 | 충남대 철학과 교수

의 현상을 현상학적으로 접근해 우리에게 단적으로 알려지는 단순한 사실을 철학의 원리로 세울 것을 말한다. 그것이 생명현상에 특유한 내면성과 역동적 자유며 인식론적으로는 우리의 탐구가 신체와 지각, 그리고 (가치) 지향적 활동성에 기초해야 함을 말한다. 그는 한편으로 전통적인 과학과 형이상학, 그리고 인식론을 구성하고 있는 물리적이고 논리적인 어휘들을 이런 생명철학의 원리에 기초한 실존적 어휘들, 예를 들면 생과 사, 그리고 현실적인 생명체 기관의 작용과 목적론적인 활동 개념으로 해석하면서, 고대 사상과 현대 사상이 지닌 지적 패러독스와 이들 사이의 역전 현상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죽음의 가능성 앞에서 생존 가능성에 토대를 둔 생명의 불멸성을 획득하기 위해 신의 운명까지도 위탁받은 인간의 책임을 윤리의 기초로 할 것을 옹변하고 있다.

그런데 이 책에 화이트헤드에 대한 언급은 있으면서도 지리적으로, 사상적으로 그리고 내용도 유사한 베르그송의 생명철학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은 유감스런 일이다. 번역은 매끄럽다. 독일어를 모국어로 하고 있고 불어나 영어에도 밝은 안드레아스 호이어 박사의 도움을 받았다고 했으니, 아직은 과학적으로 그리고 철학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많은 한국어와의 충돌을 고려하면 더 이상 좋은 번역은 있을 수 없겠다. ■

송영진 교수는 서울대 문리대 철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벨기에 루벵대 훗설 연구소에서 연구했다. 현재 충남대 철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저서 《플라톤의 변증법》, 역서 《철학의 단계적 이해》 《도덕과 종교의 두 원천》 등이 있다.